

제가 초대 이사를 맡은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이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의, 평화, 인권이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더욱, 송상현 교수님께서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
한국인 최초 국제사법기구의 수장을 역임하시며
실천하고 또 발전시켜온
'치유와 회복의 정의'가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